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2호 [주제 제25751호] 주제 106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 로케트 발사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리병 철동지, 김정식
동지, 조용원동지,
유진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장관, 대령, 전임호
동지를 비롯한 국방
과학연구부문의 일군
들이 훈련을 참관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탁경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부들이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달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
군 화성포병부대를 포함한
만도로케트 《화성-12》형이 동원되

세계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은 중대한 의미와 무게가

실현 우려의 경고에 도전하여 풀내 강행되고 있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비한 대응무역시위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조선반도유사시 우리의 전략무력의 신속대응태세를 확정검열하고 새로 장비한 중장거리전략탄도

로케트의 실전운영능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불의적인 기동과 타격을 배합하여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국가의 수도에서 첫 발사

훈련을 진행하게 된 화성포병들의 가슴가슴은 이룰 할 수 없는 전투적 열광으로 세차게 높뛰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사장에 도착하시여 《화성-12》형로케트 실전운영능력과 새롭게 장비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성-12》형로케트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순간 밟아오는 평양의 새벽하늘을 불은 화광으로 물들이며 거세찬 폭음높이 주체적 학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안고 《화성-12》형이 도도히 솟구쳐올랐다.

발사원 탄도로케트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일본 후카이도의 오시마반도와 에리모갑상공을 가로질러 통과하여 북태평양해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을 명중타격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새로 장비한 첨단로케트체계에 정통하고 기재를 하시였다.

잘 다룬다고 하시면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로케트설전운영에서 좋은 경험을 쌓았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대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광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목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이 저들의 행태를 지켜볼것이라고 한 우리의 경고에 호전적인 침략전쟁연습으로 대답하였다며 충실히 말씀하면서 오늘 전략군

이 진행한 훈련은 미국과 그 종개들이 벌려놓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일따름이라고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극도로 철예한 정세를 완화할때 대한 우린의 주동적인 조치를 외면하고 펜펜스럽게 돌아대는 미국과는 절대로 말로 해서는 안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것이 이번에 또 한번 찾게 되는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전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 할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행동을 결심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결매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략군 장병들이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화성포싸움준비를 더 한층 강화하여 강위력한 탄도로케트들을 일의 순간에 발사할수 있도록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절저히 갖춤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 무리들의 군사적망동을 억제하고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체 장병들은 107년 전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피의 8월 29일에 전악한 일본섬 나라족

속들이 기절초풍 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고 수도권지역에서 탄도로케트를 발사하도록 승인하여주시어

우리 인민의 가슴에 쌓이고쌓인 한을 풀어주신 철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명령만

내리면 반제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게 될 최후성전의 맨 앞장에서 조선로동당의 밀음직한 핵무장력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최후승리 떨치리

온 나라가 불도 가니마냥 끌어먼지고 있다. 가증스러운 미국의 분별없는《전쟁불법》에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뛰쳐나섰다. 서슬푸른 폭력의 풍대, 복수의 용상을 비껴들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뼈년숙적 미제를 만호의 죽적처럼 베릴 의지로 퍼지는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천지에 전감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있고 당파 수령의 두리에 천민이 군계 풍진 일심 단결이 있으며 백전백승의 보검인 자력자강의 위력이 있기에 우리의 배신은 듣든하고 철승의 신심은 하늘에 달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경쟁은 우리의 힘, 무력의 자원, 무리의 기술로는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주주의 정신이며 최첨단과학의 정신입니다.』

절친지원부 미제를 단숨에 오장벌 명적의 의지로 끌어먼지는 이 땅우에 천만군민의 웨힘이 매히비친다.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전진을 더그치자!』

극악무도한 날강도 미제의 무분별한 전쟁도박행동, 단말마적방악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투자비하게 저갈기며 자력경쟁의 기치높이 전민총동작전에서 최후승리를 펼치고 아발 전사의 의지로 천만의 심장들이 세차게 고동친다.

자력자강!

이는 위대한 때두산장군들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투쟁방식, 전진방식이다.

돌이 보면 백두산질세 위인들의 빙도따라 혁명의 죽풍우를 끄고해치며 승리의 불길을 퍼뜨리는 나날에 이 땅우에 편승의 기치로 나래친 것은 자력경쟁의 기치였다.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피어민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군민이 뼈에 새긴 진리이다.

준엄한 두정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의 뼈기로 확증된 철리이다.

백두산질세 위인들의 흥에서 혁명

로, 생존방식으로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기애 존엄한 항일대전에서도 반제반미 대결전에서도 기적적 승리만을 펼칠수 있었다. 거창한 창조와 건설의 전역마다에서 세인을 놀라우는 기적과 신화들을 편이어 창조하며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긍지높이 이르세길 수 있었다.

주제 4 (1 9 5 6)년 날강도 미제가 또다시 칠락경쟁의 불구름을 끌어오고 이중이 중증이들이 사면왕방에서 암살하게 책동하며 남편언 그처럼 준영하였던 때에도 이 땅우에 힘 차게 나래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당과 인민은 백승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행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내와 외세의 혼은 당국의 길이며 자력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고 혁명과 진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 고화한 지침을 밝혀주었다.

오늘도 빙도따라 어려운다.

암흑한 양경속에서도 천리전선길, 현지지도 강행 군길을 헤치시며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자력자강을 영원불변의 철길로 더 욱 길이 세겨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의 거룩한 명도자목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의 온갖 학동을 단호히 킷부시며 백승을 펼쳐온 우리 혁명의 역사들을 틀어이겨 풀어놓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자력경쟁의 기치를 억제시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대진군의 새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자목이.

자강도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옥현민의 자죽을 새기며 자력경쟁의 기치높이 전민총동작전에서 최후승리를 펼치고 아발 전사의 의지로 천만의 심장들이 세차게 고동친다.

자력자강!

이는 위대한 때두산장군들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투쟁방식, 전진방식이다.

돌이 보면 백두산질세 위인들의 빙도따라 혁명의 죽풍우를 끄고해치며 승리의 불길을 퍼뜨리는 나날에 이 땅우에 편승의 기치로 나래친 것은 자력경쟁의 기치였다.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피어민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군민이 뼈에 새긴 진리이다.

준엄한 두정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의 뼈기로 확증된 철리이다.

백두산질세 위인들의 흥에서 혁명

하는 법을 배우며 자력자강을 생명으로 우리 당과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

과 난관을 겪었다.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창광 수심년간의 제제와 압살책들은 실로 벽사에 전후후후한 가장 포악무도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를 뱃승의 보검으로 품어쥐고 엄혹한 시련과 역경을 부수버리며 승리의 역사를 력력히 이로새기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백승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행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내와 외세의 혼은 당국의 길이며 자력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고 혁명과 진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 고화한 지침을 밝혀주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에서 말하지만 자력경쟁이 세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자력경쟁이 세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아래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부터 창광 수십성 새세기와 새기자를 이어 혁명의 천만리 우에 힘차게 나래치며 코나풀 위력을 펼친 자력경쟁, 그 고귀한 활로를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다시금 길이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과 청년들역 대지휘 청원들의 가슴은 마땅 변화를 봤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온 나라 천만군민은 자력자강의 사상과 정신을 뼈에 새긴 일월두사들의 키우시려는 그 고숭한 뜻, 자력경쟁의 위해으로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단호히 킷부시려고 기어이 최후승리를 펼친 자력자강의 기치를 끌어내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은 의지에 빠두청원들의 가슴은 세운 새세계로 높뛰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퍼지는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밟고 따르는 고집한 충성과 혁혁한 원훈으로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궁지뇌에 세겨자는 우리의 청년청원들이 더없이 미롭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청원들의 가슴마다에 길이 세겨주신 것은 바로 자력자강의 신념이었다.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밟고 따르는 고집한 충성과 혁혁한 원훈으로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궁지뇌에 세겨자는 우리의 청년청원들이 더없이 미롭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이 세겨주신 것은 바로 자력자강의 신념이었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지적인 여기 대자연개조 천우준에서 청년군대의 청년들로 헌신과 헌신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창조하였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지적인 여기 대자연개조 천우준에서 청년군대의 청년들로 헌신과 헌신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창조하였다.

그렇다.

우리의 천 출원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혁사의 시련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암울한 청년에

그리고 청년일군들에게 헌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온 세상을 경란에 하고있다.

명세를 헤어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청년일군을 무르시였다.

청년사업을 갖 시작한 그의 남모르는 고종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왜 얼굴이 죽갔는가고 물으셨다. 일군은 만평개발부장관의 청년들에 보내온 청년 풍자를 통해 그이에게 자력자강의 기치밀에 원정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적종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청년들에 청년 청년발전소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퍼지는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밟고 따르는 고집한 충성과 혁혁한 원훈으로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궁지뇌에 세겨자는 우리의 청년청원들이 더없이 미롭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이 세겨주신 것은 바로 자력자강의 신념이었다.

그렇다.

우리의 천 출원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혁사의 시련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암울한 청년에

그리고 청년일군들에게 헌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온 세상을 경란에 하고있다.

명세를 헤어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청년일군을 무르시였다.

청년사업을 갖 시작한 그의 남모르는 고종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왜 얼굴이 죽갔는가고 물으셨다. 일군은 만평개발부장관의 청년들에 보내온 청년 풍자를 통해 그이에게 자력자강의 기치밀에 원정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적종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청년들에 청년 청년발전소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퍼지는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밟고 따르는 고집한 충성과 혁혁한 원훈으로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궁지뇌에 세겨자는 우리의 청년청원들이 더없이 미롭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이 세겨주신 것은 바로 자력자강의 신념이었다.

그렇다.

우리의 천 출원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혁사의 시련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암울한 청년에

그리고 청년일군들에게 헌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온 세상을 경란에 하고있다.

명세를 헤어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청년일군을 무르시였다.

청년사업을 갖 시작한 그의 남모르는 고종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왜 얼굴이 죽갔는가고 물으셨다. 일군은 만평개발부장관의 청년들에 보내온 청년 풍자를 통해 그이에게 자력자강의 기치밀에 원정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적종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청년들에 청년 청년발전소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퍼지는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밟고 따르는 고집한 충성과 혁혁한 원훈으로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궁지뇌에 세겨자는 우리의 청년청원들이 더없이 미롭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이 세겨주신 것은 바로 자력자강의 신념이었다.

그렇다.

우리의 천 출원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혁사의 시련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암울한 청년에

그리고 청년일군들에게 헌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온 세상을 경란에 하고있다.

명세를 헤어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청년일군을 무르시였다.

청년사업을 갖 시작한 그의 남모르는 고종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왜 얼굴이 죽갔는가고 물으셨다. 일군은 만평개발부장관의 청년들에 보내온 청년 풍자를 통해 그이에게 자력자강의 기치밀에 원정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적종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청년들에 청년 청년발전소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퍼지는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밟고 따르는 고집한 충성과 혁혁한 원훈으로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궁지뇌에 세겨자는 우리의 청년청원들이 더없이 미롭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이 세겨주신 것은 바로 자력자강의 신념이었다.

그렇다.

우리의 천 출원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혁사의 시련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암울한 청년에

그리고 청년일군들에게 헌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온 세상을 경란에 하고있다.

명세를 헤어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청년일군을 무르시였다.

청년사업을 갖 시작한 그의 남모르는 고종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왜 얼굴이 죽갔는가고 물으셨다. 일군은 만평개발부장관의 청년들에 보내온 청년 풍자를 통해 그이에게 자력자강의 기치밀에 원정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적종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청년들에 청년 청년발전소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퍼지는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밟고 따르는 고집한 충성과 혁혁한 원훈으로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궁지뇌에 세겨자는 우리의 청년청원들이 더없이 미롭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이 세겨주신 것은 바로 자력자강의 신념이었다.

그렇다.

우리의 천 출원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혁사의 시련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암울한 청년에

그리고 청년일군들에게 헌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온 세상을 경란에 하고있다.

명세를 헤어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청년일군을 무르시였다.

청년사업을 갖 시작한 그의 남모르는 고종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왜 얼굴이 죽갔는가고 물으셨다. 일군은 만평개발부장관의 청년들에 보내온 청년 풍자를 통해 그이에게 자력자강의 기치밀에 원정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적종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청년들에 청년 청년발전소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퍼지는 일련단심 우리 당만을 밟고 따르는 고집한 충성과 혁혁한 원훈으로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궁지뇌에 세겨자는 우리의 청년청원들이 더없이 미롭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